

# 日本정유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

## 머 리 말

日本の 정유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생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日本의 석유산업은 '90년에 주유소의 신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된데 이어 특약점이 자유롭게 원매를 선택하는 轉籍(系列선택)의 자유화가 실현되었다.

'91년도 말에는 원유처리 쿼터지도도 철폐된다. 이미 상업증류장치(Topper)의 가동률은 업계 전체로는 70% 이상으로 향상되어 上限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내의 석유수요가 순조롭게 증가할 경우 국내 정제분야에서의 신규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는 새로운 투자를 낳는다. 석유업계는 바야흐로 「투자경쟁」과 「체력승부」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은 실로 냉엄하다. 코스트 상승과 고급리추세 때문이다.

日本석유회사의 대응책을 보면 첫째는 과당경쟁으로부터의 탈피와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의 안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간의 제휴와, 계열화, 제휴선과의 관계강화, 집약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는 합리화에 의한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주유소의 고층빌딩화등에 의한 재이용, 동경만 안의 정유공장이나 저유기지의 통합합 등이다.

셋째는 신규사업의 개척에 의한 경영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설비의 집약화로 유희화한 부동산의 활용과 신소재, 바이오, 전자분야로의 진출도 포함되어 있다.

넷째는 채산성이 좋은 휘발유의 판매력 강화에 의한 세어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원유의 안정공급을 위해 개발유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국제적인 업계 재편에 대처하는 것이

다. 또한 주유소는 防火面으로부터 그 이용형태가 규제되어 왔으나 '87년 5월 소방법의 일부 개정이 실현되고, 취급품목이 자유화된데 이어 고층화 이용이 자유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주유소의 2면 이상이 도로에 면해 있으면, 고층 오피스 빌딩으로서의 이용이 가능하다.

향후는 주유소의 활성화와 함께 정유공장이나 저유소 등의 철거부지 이용을 포함, 보유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日本 興業은행의 「'90년의 석유업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 ① '90년도 연료유 수요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은 약간 둔화될 것이지만,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것은 경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휘발유, 경유, A중유 등 수송연료를 중심으로 순조롭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② 이러한 수요호조를 반영하여 원유처리량은 증가추세에 있고 제품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 ③ 주유소 건설 규제완화의 본격화로 휘발유의 판매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수급은 완화되어 휘발유 시황에 강력한 가격인하 압력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④ 日本의 석유업은 여전히 휘발유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급락하면 타제품(예를 들면 등·경유)으로 이익의 손실을 커버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 석유회사의 수익 수준은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결론이다.

다음은 日本정유회사들의 주요 생존전략이다.

## 1. 석유업계의 경영실적

日本 통산성 자원에너지청의 '89년도 석유산업 결산(31사 기준)자료에 의하면 '89년도 매출액은 14조1천억 円으로 '88년에 비해 1조5천억 円(11.8%)이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에 대한 경상 이익률은 1.22%로 전년도의 25.9%에 비해 24% 정도의 대폭적인 감소를 기록하였다.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은 업자간 거래물량의 출회와 사후조정 등이 계속된 데 기인되고 있다.

### '89년도 日本석유산업의 경영실적

(단위 : 억 円)

	1987	1988	1989	'89 / '88 증 감
경 상 이 익	2,291	3,227	1,728	△1,552
환 차 손 익	690	27	△504	△ 531

주 : 주요석유판매, 원매기업31사 기준

- '89년도 매출액은 내수호조를 반영하여 4억5천만 kℓ, 전년대비 2천kℓ(5.1%) 증가, 매출액도 14조1천억 円으로 1조5천억 円(11.8%)이 증가하였다.
- 그러나 경상이익은 원유가격의 상승과 円약세에 따른 원유가격의 상승에 비해 가격전가가 불충분하고, 円약세에 따른 환차손도 발생하여 당기 경상이익은 1,725억 円으로 전년대비 1,552억 円(47.4%)의 대폭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1.22%로 '88년도의 25.9%, '87년도의 22%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영업이익은 3,087억 円으로 '88년도에 4,290억 円, '87년도의 3,445억 円에 비해 낮아졌으며 특히 '88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였다.

## 2. 설비확대

日本산업구조심의회 자금부회의 '90년도 설비 투자조

사 결과에 따르면 전산업에서 전년도의 당초계획에 비해 2.5%증가한 13.1%가 늘어났다. 이중 석유산업은 전년도 당초계획인 29% 증가보다는 하회하였으나, 중요 산업 중에서는 일반기계 38.9%, 석유화학 27.4%에 이어 3위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석유산업의 설비투자형태는 예년의 주유소 중심에서 '90년도에는 정유공장 자체의 투자 증가가 현저해지고 있다. 이 투자는 2차 설비가 중심이지만, 수요의 증가현상으로 1차 설비증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1) 2차 설비의 증강

日本 석유업계의 금년도 설비투자 계획에 따르면 총 투자액은 5,061억 円으로 업계사상 최초로 5,000억 円대를 돌파하였으며, 정제부문도 각사의 2차 설비투자의욕으로 '89년대비 48.3%의 증가를 보인 것을 비롯해 자유화로 주목되고 있는 주유소에 있어서는 1,750억 円으로 '89년 대비 146억 円이 증가하였다.

석유각사의 경영과제로서 현재 가장 절실한 것은 채산성 유종인 휘발유의 생산능력 확대이다. 최근의 내수호조에 힘입어, 기존의 생산능력으로는 한계에 달한 기업이 많아 향후 신·증설이 잇달을 전망이다. 선수를 쳐서, 昭和シェル石油와 東燃의 신규 CCR(연속 재생식 접촉촉질 장치)이 모두 가와사키 정유공장에서 가동되었다. 금년도에만 신·증설에 의한 생산능력 확대는 하루 11만 배럴 이상으로 예상되어 휘발유의 국내 생산 체제는 일거에 확대된다.

### 日本 석유업계의 설비투자상황

(단위 : 억 円, ( )은 전년도 대비 %)

	1989 (추정)	1990 (계획)
정유부문계	1,595(159.7)	2,366(148.3)
· 정 유 소	180(123.8)	288(159.6)
· 주 유 소	1,604(124.9)	1,750(109.1)
· 기 타	54( 82.9)	58(107.6)
유통부문계	1,839(122.9)	2,096(114.0)
· 관 리 부 문 계	535( 87.7)	508( 95.0)
· 유 지 · 보 수	78(116.4)	91(116.7)
계	4,047(127.6)	5,061(125.1)

CCR은 水素化脱黃된 중질나프타를 촉매를 사용하여 개질하여 고옥탄화의 리포메이트(개질휘발유)를 생산하는 장치이며, 리포메이트는 보통휘발유에 50%정도, 고급휘발유에는 25% 정도 혼합하고 있으며, 휘발유 제조에 없어서는 안될 장치이다. 더우기 이 리포메이트는 벤젠, 톨루엔 등 BTX(방향족 제품)의 원료도 되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문 확대에도 없어서는 안될 제품이다.

금년도 상반기 국내 휘발유 생산은 2,000만kl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미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사 모두 설비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昭和シェル石油가 가와사키 제철소에서 가동시킨 CCR은 능력이 하루 21,500배럴. 동연은 키그나스 석유정제와의 공동장치로 하루 24,000배럴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에 이어, 11월에 出光興産이 야마구찌에 있는 도꾸야마 정유공장에 20,000b/d의 장치를, 12월에는 일본광업이 오카야마에 있는 미시마 정유공장에 24,000b/d의 장치를 신설할 예정이다. '91년 초에는 日本石油그룹의 興亞石油가 야마구찌에 있는 마리후 정유공장에 20,000b/d의 장치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장치의 능력증강에 있어서도 昭和四日市 石油가 30~40%의 증설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설비증강 능력을 합하면 국내 휘발유 생산능력은 금년도 말에는 하루 11만 배럴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90년도에 들어와서, 허가를 받은 특정설비는 조건변경을 포함, 장치수로 6건이며 그 내역을 보면 미쓰비시 石油가 접촉분해장치의 능력을 현행 34,000b/d에서 37,000b/d로(3,000b/d 증설) 확대하고, 7,600b/d 알킬레이션 장치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코스모 石油의 FCC에 대한 휘발유 회수량 조건이 삭제되어 휘발유 생산에 제한이 없어졌으며, 가시마 석유는 폐기되었던 7,500b/d의 접촉 개질 장치를 복구하였다.

이 결과 현재 日本의 능력은 접촉개질 장치가 695,400b/d이며 FCC는 694,100b/d 알킬레이션 장치는 48,900b/d이다.

휘발유 생산시설의 능력증강은 규제완화 Action Program(행동계획)의 제1단계로서 '87년 7월에 설비허가의 운용이 탄력화된 이후 휘발유 PQ제 폐지를 앞두고 한 때 붐을 이루었으나 PQ제가 폐지되면서 부터는

약간 시들해졌다. 그러나 '92년 원유처리지가 철폐될 예정으로 있어, 그때까지 2년 밖에 남아 있지 않아 휘발유 생산능력의 증강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제·원매각사는 수익성 유종인 휘발유의 증산과 수출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휘발유 이익이 PQ제의 폐지를 계기로 감소추세가 시작되어 생산능력의 증설투자가 과잉투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 (2) 주유소의 사업다각화

산업구조심의회, 산업자금부회의 '90년도 설비 투자계획('90년 2월 시점 조사)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의 투자액(공사 배이스)은 5,061억円で '89년도 실적추정치인 4,047억원에 비해 25.1% 증가하였다. 이것은 각사의 자유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자세에 따른 것이며, 과거 최고수준이었던 '74년의 4,367억원을 상회하는 투자계획 규모이다.

투자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정유부문 2,366억円(구성비는 46.8%)으로 전년대비 48.3%가 증가되었다. 유통시설 부문에의 투자는 2,096억円(구성비 41.4%)으로 전년대비 14.0%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서 저유소 부문에는 1,750억円(同 9.1% 증가)으로 투자가 증가하였다.

현재 日本의 고정식 주유소의 총수는 5만8천개소 이상이다. 각 원매는 계열 주유소의 확대를 도모하여 지금까지 극심한 휘발유 판매경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매각사의 휘발유 마진이 축소되어 주유소의 수익률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원매각사의 주유소 투자를 보류하는 양상도 농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유소의 건설규제완화가 3월말로 폐지되어도 과거 주유소 건설규제에 있어서 Scrap and Build가 적용되던 시절, 폐지 쿼터로서 보존되어 온 비효율 주유소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간선도로변과 신흥주택지등에서는 대형 주유소의 건설이 예상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주유소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원매와 석유 판매업자는 주유소 경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유소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한편 복합적 주유소로 전환하고 있다.

주유소 전국시대를 맞아 경쟁이 심화되면서 CVS (Convenience Store), 커피숍, 레스토랑, Rental Video 점, 아이스크림 숍, 클리닝점 병설등 사업 다각화가 한창이다.

日本石油는 다이에 계열의 선체인, 로손과 함께 편의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昭和靚石油는 西武 세존계열의 패밀리 마트와 제휴한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Esso석유도 CVCC 운영에 나서고 있고, 코스모석유는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오키나와, 金澤文庫에 오픈했다. 三菱石油의 중고 자동차 Rental, 시나엔 石油의 이탈리아 토마토와 제휴한 복합 상점도 있다.

三井石油는 전국 4,500개소의 주유소에 광고간판(Ad. Board)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비즈니스社에 주력하고 있다. 상품 캠페인에 사용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共同石油는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주유소의 정보망 구축을 시험하고 있다고 한다.

出光興産은 석유사업외에도 석탄, 가스, 원자력, 지열 등에도 참여, 종합에너지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석탄은 濠洲, 북미탄 중심으로 연간 500만톤을 초과하는 규모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다.

### 3. 석유화학사업에의 진출

벤젠의 설비투자 계획이 난립되어, '91년말까지 4사가 연간 10만톤 이상의 벤젠설비를 완성시킬 계획이다. 또한 '92년이후에는 5개사 이상이 대형설비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방향족 사상 처음으로 투자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벤젠설비 투자계획의 러시현상은 수요가 연간 5.6%의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외에 정유회사가 석유정제의 연장선상의 사업으로 하류부문인 방향족 사업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며, '93, '94년까지는 극심한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日本 통산성에 의하면, 벤젠의 日本 국내 수요 中期 전망은 '91년 321만톤, '93년 356만톤으로, 수출은 연간 7만~1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벤젠은 국내에서는 주로 스틸렌 모노머, 사이클로 헥산, 페놀등으로 소비되며, 이러한 주요 유도품의 국내생산 증가에 따라 벤젠의 日本 국내수요는 '89년의 약 290만톤에서 '91년에는 321만톤, '93년에는 356만톤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日本 국내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벤젠의 대형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것은, 新日鐵화학, 일본광업, 태양석유, 흥아석유, 출광흥산, 昭和靚石油, 富士石油, 삼릉석유, 丸善석유화학등으로 이들 가운데 신일철화학, 일본광업, 태양석유, 흥아석유등 4개사가 '91년 가을까지 총 연산 70만톤 규모의 설비를 완성시킬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르면, 신일철화학은 '90년 8월 완성목표로 연산 15만톤의 벤젠설비를 건설한다. 동사는 이를 스틸렌모노머로 소화시킨다. 일본광업은 同 10만톤의 벤젠설비를 '90년 12월 완공 목표로 건설하고, 住友화학공업과 新大協和석유화학등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태양석유는 연산 33만톤의 대형 벤젠설비를 '91년 4월 완성목표로 건설한다. 동사는 旭化成工業외에, 三井물산을 통해 三井석유화학, 三井東壓化學에 공급한다. 興亞石油는 연산 12만톤의 벤젠설비를 '91년 10월에 완성시킬 예정이다. 공급선은 三井석유화학과 三井동압화학으로 공급물량은 반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4개사의 공급선은 모두 스틸렌모노머, 페놀, 사이클로 헥산을 목적으로, 특히 태양석유와 흥아석유의 공급선은 모두 三井석유화학, 三井동압화학에 주로 공급하게 되어 있다. 三井석유화학은 페놀에, 三井동압화학은 페놀과 SM에 벤젠을 소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다음에, 出光석유화학, 昭和靚石油, 富士石油, 三菱石油, 丸善石油화학등이 벤젠설비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出光석유화학은 '91년말이나 '92년 봄에, 昭和靚石油와 富士石油는 '92년말에, 三菱石油, 丸善석유화학은 '93년이나 그 이후에 각각 벤젠 생산설비를 완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日本鑛業의 경우, 금년도 중에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플랜트를 계속 증강한다. 이미 知多 정유공장內에 건설 중인 연산 15만톤 규모의 파라크실렌(PX)설비는 현재 완성되어 시운전에 들어갔다. 8월경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증강에 의해, 동사의 PX 제조 능력은 연 28톤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BTX 설비도 내년초에 연산 10만톤 규모의 설비증강을 마치고, 기존 설비와 합쳐 27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 4. 열병합발전사업에의 진출

석유원재 각사가 등·경유와 중유를 연료로 하는 석유 열병합발전의 판매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선발업체인 昭和シェル石油은 이미 누계 44건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누계 60건이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日本石油은 작년 가을 ISUZU 자동차와 공동개발한 소형 패키지시스템을 중심으로 판매를 강화, '89도에 4억円이었던 열병합발전의 판매고를 금년도에는 2배 이상인 10억원으로 하는 목표를 세웠다.

열병합발전의 연료는 크게 나누어 가스과 석유가 있다. 가스는 출력 100kw 이상의 중대형에서 사용되며, 100kw 이하의 소형에서는 석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업체가 열병합발전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작년 가을부터이다. 주로 계열특약점의 주유소에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이 밖에 특약점의 소개 등을 통하여 중소 기업과 병원, 호텔등에도 중·대형 시스템의 판매노력을 경주하였다.

업계 1위인 日本石油은 '89년도에 대형 시스템 5건을 비롯하여, ISUZU와 공동개발한 패키지시스템 "Petro Boy"(상품명, 출력 30~50kw)를 4건 판매하였다. 금년도에는 판매체제도 강화하여 "Petro Boy"를 중심으로 매출을 배증시킬 계획이다. 석유의 자유화실시에 따라 주유소의 신증설이 활발화되므로 계열 이외의 주유소도 포함하여 "Petro Boy"의 판매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3년전부터 열병합발전의 판매에 착수하고 있는 昭和셀은 출력 300kw급을 중심으로 중소공장 등에 납입실적을 쌓아왔다. 향후에는 2시간 감시시스템등 소프트웨어 면에 충실,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出光興産도 대형 시스템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출력 700kw급을 중심으로 18건의 납입실적이 있다. 연간 10건의 페이스로 착실하게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 5. 석탄산업

日本石油은 석유에 버금가는 주요 에너지로서 석탄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도의 판매량은 100만톤을 돌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70만톤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일본 국내의 석탄수요는 전력용의 일반

탄이 경기확대 호조의 영향을 받아 두자리수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철강부문의 원료탄 수요도 粗鋼생산의 확대에 따라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중기적으로는 석유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므로 화학, 종이 펄프, 시멘트등의 자가발전 및 중유보일러등의 석탄 전환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때문에 동사는 중기적으로 석탄사업의 대폭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것에 따르면, 3~4년 이내에 석탄판매를 현재의 100만톤에서 3배인 300만톤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제3국으로의 수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판매 확대에 수반하여 공급측면에서의 강화도 아울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급체제의 강화는, 금년부터 美國 세브론의 자회사를 통하여 철강부문의 원료탄 수입을 개시하는 외에 도멘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濠洲의 석탄 광산을 금년 말부터 가동시키는 것으로 대응한다. 濠洲에서는 10%의 권익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200만톤의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의 판매확대와 동시에 臺灣, 韓國 등의 석탄판매에도 새롭게 진출할 방침이다.

석유원재는 최근 석탄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출광광산을 필두로 昭和셀石油, 共同石油 등이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出光興産은 500만톤 체제로 되어 있으며, 昭和셀石油, 공동석유 등도 100만톤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금년도 원재 전체의 석탄 판매량은 1,000만톤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出光興産은 愛知정유공장 구내에 CCS(Coal Cartridge System) 공급설비의 건설을 추진, 지난 4월에 기공식을 행하였다. 총공사비는 약 30억円, 능력은 20만톤/년이며 '91년 9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CCS는 석탄을 微分炭化하여, 중유수준에 버금가게 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상업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CS의 개발에 대해서는 CCS진흥협회가 '84년 8월에 설립되어, 德山市에 CCS 공급설비, 岩國에 연소설비를 설치하고, CCS탄을 제조, 로리로 수송하는 실증테스트를 행하고 있다.

CCS의 메리트로서는, ①경제성에서 우수하고, 중유에 비해 2~3할 가격이 저렴하며 향후 석유와 석탄의 가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메리트가 커질 전망이다. ②저탄장 및 분쇄계통의 설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소요면적을 적게 차지한다. ③연소시킨 후 炭처리  
의 걱정이 없다. ④粉體로써 공급하기 때문에 이물질  
혼입 등의 걱정이 없으며 취급성에서 우수하다. ⑤수송  
에서 사용까지 완벽한 Closed System으로 클린성에서  
우수하다. ⑥수송에서부터 분체이기 때문에 보일러의  
부하 변동에 대하여 중유수준의 추종성을 발휘한다.  
⑦분쇄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이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맺는말

석유회사의 사업다각화는 실로 광범위하여 종합에너지  
회사가 아닌 석유화학, 외식산업, 생활용품, Car  
Lease, 무점포판매, 교육사업등 여러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出光興産의 경우 本體매출고 1조5,000억円の  
1%를 신규사업에서 접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  
다.

일본광업(주)은 내년에도 기능성식품 분야에 진출한  
다. 동사는 현재 녹차연구의 제1인자인 静岡약과대학원

교수 林榮一씨와 공동으로 녹차추출물(엑기스)의 약리  
효과 검토를 진행중인데, 최근 녹차에 포함된 탄닌이  
간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사에서는 연내를 목표로 同 엑기스를 사용한 기능성  
식품의 상품화를 추진, 내년부터의 판매를 목표로하고  
있다. 노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의료도 종래의 치료에서  
예방 및 건강유지로 중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같은 때  
크게 주목되고 있는 것이 식품이다. 그중에서도 기능성  
식품은 향후 크게 신장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동 분야로  
의 진출을 결정한 것이다.

코스모石油그룹이 착수하고 있는 신규사업을 보면,  
①혼례용 침나무 대여, ②인재과전업, ③松山골프연습  
장, ④고농도 水酸化 소다의 제조, ⑤중유의 직접탈류장  
치용 촉매(코스모의 독자개발) 해외수출(대만 및 쿠웨  
이트등으로), ⑥타이어 판매사업, ⑦레스토랑사업, ⑧警  
備保障사업, ⑨철거부지 재개발, ⑩아부다비에서는 서미  
트 슈퍼마켓 등의 사업전개를 하고 있다. 이상은 모두  
本業 중시하에, '90년대에 생존을 걸은 사업다각화이  
다. ♣〈석유정보다이제스트〉

### □ 明心寶鑑 □

## 天有不測風雨하고 人有朝夕禍福이니라.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과 저녁으로 재앙과 복이 있다.〉

하늘의 조화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맑은 날씨가  
갑자기 검정구름이 모여들어 비가 오기도 하고, 소나기가  
역수같이 퍼붓다가 잠시후에 태양이 빛나기도 한다. 인간  
의 길흉화복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화무쌍하다. 오직 선과

덕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과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언제 재앙을 받을지 모른다. 오직 사람  
으로서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